



제62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16일)

## 손세기 · 손창근이 모으고 기증한 김정희의 명품 서화

오다연 | 202호 서화실Ⅱ | 18:00~18:30

2018년 11월, 손창근孫昌根(1929~) 선생은 부친 고故 손세기孫世基(1903~1983) 선생과 자신이 수집한 202건 304점의 문화재를 기증하였습니다. 손세기 선생은 개성출신의 사업가로 우리 미술품을 매우 사랑하여 높은 감식안으로 서화를 정성스럽게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화가인 정선, 심사정, 김정희, 허련, 장승업, 안중식, 조석진 등의 그림과 서예, 그리고 오재순, 장승업, 홍선대원군 등의 인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19세기 조선의 문예를 주도했던 금석학자이자 서예가인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글씨와 간찰 등이 상당수 있어 주목됩니다. 손세기, 손창근 부자의 기증을 기념하는 첫 번째 특별전은 김정희의 대표작인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 및 그의 작품을 소개하여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김정희는 24세에 연경에 다녀와 청나라의 학자들과 만난 이후, 그들과의 인연을 지속해왔습니다. 그 중 청나라 4대 문장가이자 대학자인 옹방강翁方綱과의 사제 관계는 그의 학문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정희는 옹방강의 영향 아래 중국서예가의 글을 탐구하고 그들의 글을 발췌하며 글씨를 연습했고, 종정문을 연구하며 옛 글의 기원을 공부했습니다. 중국의 세발 술에 새겨진 글을 임서한 <종정문에 대한 해석>과 《영위가장첩永爲家藏帖》은 서예가로서 자신의 서체를 형성하는 김정희의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한 청나라 서화가인 주학년과 교류하면서 그의 서재 함추각涵秋閣 기둥에 걸릴 <행서대련行書對聯>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대련의 가장자리에 적힌 글을 통해 조선의 문인 유득공柳得恭(1748~1807)의 시를 사랑한 주학년을 위해 김정희가 유득공의 시를 써서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정희는 제주도와 함경도 북청에서 10여년의 유배 생활을 했지만, 고난의 시기에 자신만의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하였고 <세한도>, <불이선란도>도 같은 명작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학문정진을 위해 서재 이름을 써 준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는 ‘오랜세월 동안 깨지고 부서진 비석돌’이라는 이름처럼 거친 획마다 희끗한 비백飛白이 나타나 깨진 빗돌을 연상시킵니다. <불이선란도>는 북청유배 중 먹을 갈아주던 시동 달준을 위해 제작한 그림으로 글을 쓰듯 난을 그린 작품입니다. 진한 먹으로 활달하게 글씨를 썼고, 각 글마다 진행방향을 달리한 점은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신분이나 나이 고하를 가리지 않고 청나라와 조선의 많은 문인들과 자유롭게 교류했던 김정희의 삶은 <불이선란도>에 찍힌 인장 「낙교천하사樂交天下士(천하의 선비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긴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62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16일)

##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김혜원 |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 18:00~18:30

카자흐스탄의 서투르키스탄 지역의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전시는 카자흐스탄 문화를 고대부터 근대까지 통사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유라시아대륙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카자흐스탄 지역과 한반도가 지니는 공통점과 교류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에필로그에 전시되어 있는 경주 계림로 보검寶劍은 고대 카자흐스탄 지역과 한반도의 교류를 암시하는 중요한 자료로입니다. 황남동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에서 발견된 보검은 동시기 신라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수입품으로 여겨지는데, 가장 유사한 형태를 카자흐스탄 보로보예(Borovoe)에서 출토된 칼 장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1부 ‘대초원 문명, 황금으로 빛나다’ 는 이번 특별전의 하이라이트인 ‘황금인간’ 과 이와 유사한 시기, 출토 맥락을 지닌 황금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온 몸에 황금 장식을 뽐뿌이 채운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황금인간’ 이라고 불리는 작품은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상징으로 인식되며 현재 8개의 사례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전시된 ‘황금인간’ 은 이식(Issyk) 쿠르간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장 먼저 발견된 사례입니다. 황금인간 이외에도 탈디Taldy, 탁사이Taksai, 사이람Sayram 유적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금제 장신구가 함께 전시되어 고대에 이미 높은 수준에 다다른 공예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제2부 ‘초원, 열린 공간’ 에서는 카자흐스탄의 고대와 중세에 해당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키토-시베리아(Scytho-Siberia) 양식의 동물문양으로 장식된 마구馬具, 제단, 술과 더불어 이슬람 문화재가 고대 유목민의 문화와 더불어 정착지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양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제3부 ‘유목하는 인간, 노마드’ 에서는 초원에서의 삶을 조명합니다. 초원에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유르트(Yurt)와 여기에서 사용한 가구, 직물, 악기, 장식품 등과 더불어 유목 전통을 계승한 마구, 장신구는 이국적인 카자흐스탄의 유목문화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통해 현재의 우리와 카자흐스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현미경으로 관찰한 누금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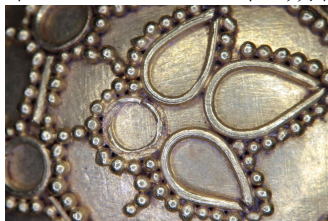
박학수 | 108호 신라실 | 19:00~19:30

누금鑲金(Filigree)은 금, 은과 같은 금속을 선이나 알갱이로 만들어 장신구 등의 표면에 붙여서 장식하는 공예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의 낙랑 고분인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국보 제89호 금제 띠고리가 이 기법으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문화재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누금을 이용하여 귀걸이를 비롯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었으며, 경주 계림로 14호분 출토 보물 제635호 장식보검은 중앙아시아와의 문화교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금을 이용하면 매우 가늘고 정교한 문양을 양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금에 사용하는 금사金絲와 금 알갱이(金粒)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금 덩어리를 두들겨서 굵은 선이나 얇은 판을 만듭니다. 굵은 선을 늘이거나, 판을 가늘게 자른 것을 비틀어서 가는 금사를 만듭니다. 금 알갱이는 선을 잘라서 열을 가하면 녹은 금의 표면 장력에 의해 구형으로 뭉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금사와 금 알갱이를 장식하려는 장신구의 원하는 위치에 올린 후 열을 가하여 바탕 부위의 금속과 붙게 합니다.

경주 보문동의 합장분에서 출토된 국보 제90호 금귀걸이는 이런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금사와 금 알갱이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반구를 붙여서 주환을 만들었는데, 직선과 원형의 금사로 거북등 모양으로 구획하고 내부를 원형, 물방울형 금사로 꽃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금사의 주위에는 1mm 미만의 누금을 붙여서 장식을 하였습니다. 구획을 한 금사는 각진 형태가 남아 있어서 두들겨서 성형했고, 내부의 금사에는 세로 줄이 나 있어서 굵은 금사를 굵으며 늘여서 가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 알갱이 중에는 덜 녹아서 구형이 되지 않거나, 짧은 선의 형태를 가진 것이 있어서 선을 잘라서 열을 가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소한 누금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문화재를 확대해 보면 아름다움과 함께 고대 장인들의 노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주 합장분  
금귀걸이



금귀걸이의 세부 현미경  
사진



제62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16일)

# 1100년 전 고려로의 과거 여행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유수란 | 기획전시실 | 19:00~19:30

“천자天子의 따님이여, 보름달 같으셨네.”

— 고려 숙종肅宗(재위 1095~1105)의 딸, 복녕궁주福寧宮主 묘지명



전시포스터

태조 왕건은 분열된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국가 고려를 세웠습니다. 고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스스로 황제국가라 칭한 해동의 천자국이었으며, 앞선 왕조가 지닌 문화적 전통을 배척하지 않고 열린 태도로 융합했습니다. 외국인을 재상으로 등용할 만큼 개방적이었으며,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전에는 고려가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이룬 문화적 성취를 살펴볼 수 있는 네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펼쳐진 찬란한 고려의 미술을 시작으로, 두 번째 공간인 사찰의 세계를 통해 고려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 미술을 살펴보게 됩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차 향기 가득한 다점茶店에서 고려의 지식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은 예술성의 정점을 이룬 공예미술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다. 고려는 인간의 정서를 포착하여 독창적인 색과 재료에 투영하고, 여기에 기술적 성취를 발휘하여 미술로 구현해냈습니다. 조선 전기의 과학, 기술, 역법, 의학의 진보는 고려시대에 다져진 토양과 자양분을 바탕으로 꽃피웠습니다.

고려가 이룬 창의성과 독자성, 뛰어난 예술성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유전자입니다. 고려의 찬란한 도전과 마주하는 1100년 전 고려로의 과거 여행이 시작됩니다.